

## 성별 집단 내 소득불평등(inequality among gender)의 변화 추이 및 원인

김 혜 연<sup>+</sup>

(이화여자대학교)

홍 백 의<sup>++</sup>

(이화여자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잡 다양한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 폭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 연령 등이 중요했으나 남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소득불평등, 성별 비교, 요인분해

<sup>+</sup> 주저자

<sup>++</sup> 교신저자(e-mail : behong@ewha.ac.kr)

\*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BK21 사업 "세계화 시대의 사회복지리더 양성"(과제번호 인06A-1704)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1. 서론

우리나라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크게 증가한 후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서 1인 가구 및 농어를 제외한 전국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니계수는 1997년 0.262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0.287로 크게 증가한 이래 2003년에는 0.282, 2005년에는 0.286으로 외환위기 직후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어느 사회나 일정 수준의 소득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소득불평등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거나 특정 집단 간의 소득차이가 심화되는 것은 사회적인 안정과 연대를 방해하여 사회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동은 불평등의 속성을 보다 복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평등을 기존의 단순한 차원이 아닌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재구성(configuration)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McCall, 2001). 특히 최근의 가구 및 노동시장을 둘러싼 변화들은 불평등의 양상과 원인이 성별(gender)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최근 30여 년간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소 상반된 추이를 보여 왔는데, 1966년에 37.0%에 불과했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6년에는 5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게 된 반면, 남성은 1966년에 78.8%로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나 완만하게 감소해 2006년에는 74.1% 정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여성의 노동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변화시켜 왔는데, 한 편으로는 고학력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활발해진 반면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은 여성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의 규모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sup>1)</sup>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여성의 노동경험이 보다 다양화되고 이질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격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노동시장 특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가구주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소득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sup>2)</sup> 노인인구와 여성가구주 가구는 집단 내부의 소득불평등도가 다른 집단보다 크며 전체적인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1) 1970년 여성 취업자의 2.4%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했던 것에 비해 2006년에는 18.8%로 1970년에 비해 7.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반면 2007년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2.1%로 2001년 35.4%였던 것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비율 또한 2001년 37.0%에서 2004년 4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 년도; 김영옥, 2006).

2) 통계청(2004)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4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여성가구주 가구 또한 1990년 15.7%에서 2000년 18.5%, 2008년에는 22.1%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노인과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추이가 지속된다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성명재, 2001; 김진욱, 2002; 임병인·전승훈, 2005; 여유진·김태완, 2006; 정의철·김진욱, 2007).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이러한 변화들이 주로 여성 집단의 특성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하위 일자리에의 집중, 여성 노인의 증가와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성별' 집단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남성과 여성은 노동시장과 가구 내에서 각각 다른 생애과정을 겪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원인은 성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퇴직 이전시점까지 지속적인 노동경력을 가지는데 반해, 여성의 노동경력은 보다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노동시장 내 지위에 있어 남성보다 양극화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절적인 노동경력과 불안정한 노동소득으로 인해 노동시장 특성보다는 혼인상태 등 가구특성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소득불평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성별 구분 없이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가구 내에서 점하고 있는 소득비중도 매우 적기 때문에 기존의 소득 불평등 연구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남성의 경험을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성별 구분 없이 이루어져 온 소득불평등에 대한 접근은 여성의 경험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과 사회 인구학적 변화들은 소득 불평등 연구에서 여성의 경험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 특히 초기의 연구들은 거시경제적 원인이나 노동시장 원인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안국신, 1995; 유경준, 1998; 박성준, 2000; 정진호·최강식, 2001; 유경준·김대일, 2002; 채구묵, 2007; Blinder and Esaki, 1978; Katz and Murphy, 1992; Murphy and Welch, 1993; DiNardo, Fortin and Lemieux, 1996; Gottschalk, 1997). 최근에는 인구사회학적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및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성명재, 2001; 성명재·김종면, 2004; 임병인·전승훈, 2005; 정의철·김진욱, 2007), 이 연구들은 고령화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등 여성 집단의 특성 변화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여 여성의 특성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성별구분 없이 개인의 임금소득 불평등을 연구하거나 가구를 단위로 불평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소득분포의 변화와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성별 집단 내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만이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임금소득과 노동시장 변수만을 다루고 있어 가구특성에 대한 분석이 제외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여성 집단의 경우 가구 특성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 가구 특성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Henle and Ryscavage, 1980; Blackburn and Bloom, 1987; Smith, 1991; Bernhardt, Morris and Handcock, 1995; McCall,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칫 단순하게 일반화될 수 있는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성별집단 내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원인을 밝히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성별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해 온 남성 집단의 경험으로 일반화되어 온 소득불평등 문제를 성별(gender) 변수를 통해 구체화하여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분석 자료로 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별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각 년도 별로 성별 집단 내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외환위기 이후 성별 집단 내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넷째,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원인이 성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학문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영역인 성별 내 불평등(inequality among gender)의 추이와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성별 집단 별로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의 사회정책이 성별 집단 별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문헌검토

본 장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간단히 검토하고 성별집단 내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원인을 다룬 초기 연구들은 주로 경제발전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Kuznets, 1955).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은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내의 초기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들 또한 경제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주학중, 1979; 주학중·윤주현, 1984; 안국신, 1995; 안국신·박완규·유형근, 1995). 경제관련 지표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은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가 상승률 및 실업률은 소득불평등 악화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자체 보다는 지가 상승률에 의한 부의 분배변화 및 노동시장 내 고용관련 요인들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력의 수요공급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유경준, 1998; 박성준, 2000; 강병구·윤명수, 2003; 채구목, 2007; Katz and Murphy 1992; Murphy and Welch, 1993; DiNardo, et al., 1996; Gottschalk, 1997). 이 연구들은 학력, 경력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의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노조 조직률 및 최저임금 하락 등이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해 왔다(성명재·김종면, 2004; Danzinger, 1980; Thurow, 1987; Cancian, Danzinger and Gottschalk, 1993; Karoly and Burtless, 1995; Lerman, 1996; Juhn and Murphy, 1997; Burtless, 1999; Cancian and Reed, 1999;

Daly, 2004).

최근에는 노령화 및 단독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들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주목을 받았다. 우선 연령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 소득불평등이 주로 노인인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2002;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임병인·전승훈, 2005; 여유진·김태완, 2006; 정의철·김진욱, 2007).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크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성명재, 2001; 김진욱, 2002), 연령 및 가구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거시적·미시적인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가구 및 임금근로자 개인의 소득불평등 추이 및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성별(gender)' 변수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구분하거나, 여성 및 남성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투입되었으며 성별 집단을 구분한 소득불평등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정이환, 2004; Henle and Ryscavage, 1980; Blackburn and Bloom, 1987; Smith, 1991; Bernhardt et al., 1995; McCall, 2001).

우선 Henle and Ryscavage(1980)와 Blackburn and Bloom(1987)은 남성과 여성의 근로소득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여성의 소득분포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전일제 근무가 많은 반면 여성들은 시간제로 일하거나 년 중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전일제 근로자만을 비교할 경우 남성의 소득불평등도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Henle and Ryscavage, 1980),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소득불평등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Blackburn and Bloom, 1987), 남성과 여성의 근로특성의 차이가 두 집단 간 소득분포의 차이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 및 산업별 불평등도에 있어서는 직업의 경우 남녀 모두 관리직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기능직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았다. 산업부문에서는 주로 제조업, 교통, 건설, 공공행정 등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낮았고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았다(정이환, 2004; Henle and Ryscavage, 1980; Blackburn and Bloom, 1987). 그러나 이러한 결과 또한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정이환(2004)에 의하면 제조업 근로자와 서비스업 근로자의 변이계수(CV) 차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서비스업에서의 소득불평등도 또한 남성이 0.70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0.78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 내 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Smith(1991)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원인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전일제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을 인종으로 구분하여 소득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에서 1982년 이후 여성의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여성 특성의 분포 변화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익률 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일제 근로자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시간제 고용이 많은 여성의 근로특성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었으며, 여성 집단 내 소득불평등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남성 집단과의 상대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Bernhardt et al.(1995)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소득 분포 상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 또 여성의 소득분포의 변화가 남성의 소득분포 변화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남성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구분한 후 각 구간에서 남성 집단과 비교한 여성 집단의 규모를 산출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소득의 양극화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임금 상승이 주로 남성 소득분포의 하위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소득불평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성별 내 소득불평등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McCall(2001)의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1980년과 1990년대 사이에 성별 집단 내 불평등이 증가하였고 성별 집단 간 불평등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25~64세 여성들 내의 불평등 수준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남성의 불평등도 만큼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소득 불평등의 패턴과 원인에 차이가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기술적 변화가 주요 원인인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및 불안정성의 증가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에 대한 접근이 성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노동시장 특성만을 분석하고 있으며, 성별 내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학력집단 간 임금비(wage ratio)만을 측정하고 있어 학력에 따른 구분 없이 보다 전체적인 불평등 양상을 제시하는데 방법상 미흡한 점이 있음이 한계로 지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내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소득불평등의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 성별 내 소득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임금소득으로 불평등을 추정하고 불평등의 원인 또한 노동시장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개인 및 가구특성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노동시장 밖에서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하며 그 영향 정도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여지영, 2003), 성별 내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가구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균등화시켜 남성과 여성의 '균등화된 개인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남성과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였으며,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인적자본 및 가구특성을 포함하여 성별 내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대상

##### (1)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9차년도(1998년~2006년) 가구 및 개인 자료를 병합(merge)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비교적 자세한 가구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다만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도시지역 가구만이 표본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8세 이상 남성 및 여성 개인이다. 따라서 분석 단위는 균등화된 개인소득을 가지는 남성과 여성 개인이 된다. 여유진·김태완(2006)은 소득의 기본단위가 가구이지만 가구보다는 인수로 접근하는 것이 전체 불평등 상황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할 것인지 가구를 단위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구를 분석단위로 할 경우 성별 비교는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만을 비교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성가구주 가구에 속한 여성들과 여성가구주 가구에 속한 남성들이 제외되므로 연구결과가 전체 남녀를 대표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는 가구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성별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게 된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우선 본 연구에서 소득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상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개인의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앞서 산출한 가구소득을 균등화지수(equivalent scale)로 조정하였다. 균등화지수는 가구 구성원들이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계비용의 감소를 추정하는 비율로써, 가구의 규모에 따라 가구의 욕구(needs)가 달라지므로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의 욕구를 동등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가구 균등화지수를 사용함으로써 가구 내에서 소득이 가구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가정되며, 이를 통해 가구 내에서 각 개인이 가지는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을 균등화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W_{0.5} = Y / \sqrt{S}$$

이 때, Y는 가구당 소득이며, S는 가구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소득불평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모탄력성 0.5의 값을 이용하였다. 0.5값은 OECD에서 사용하는 균등화 조정값으로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교적 중립적인 값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의 원인변수는 인적자본 특성, 노동시장 특성, 가구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인적자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연령과 학력을 사용하였다. 연령과 학력은 노동시장 내 임금차이를 인적자본특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최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진호·최강식, 2001; 김진욱, 2002; 임병인·전승훈, 2005; 여유진·김태완, 2006; 정의철·김진욱, 2007). 연령은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의 5개 범주로 구성하며, 학력은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4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 특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변수를 사용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의 4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산업과 직업구분은 선행연구 결과 소득불평등도에 차이를 보인 직종 및 업종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산업은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농어업 및 광업·전기·가스 및 수도·건설업을 한 범주로 하여 총 3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직업은 관리직 및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고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그 외 농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를 기타 범주로 하여 총 4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특성 변수로는 혼인상태와 동종혼인에 따른 집단구분을 사용하였다. 여성의 혼인상태는 미혼, 이혼 및 별거, 사별, 기혼의 4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고학력 남녀 간의 동종혼인 assortative mating이 부부 소득의 상관관계를 증가시키고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황수경·김가을, 2005; Hyslop, 2001)를 바탕으로 동종혼인 집단을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동종혼인은 여성과 남성 배우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남녀 모두 고졸 이하인 경우, 남성이 대졸 이상이고 여성이 고졸 이하인 경우, 남성이 고졸 이하이고 여성이 대졸 이상인 경우, 남녀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3) 분석방법

#### (1)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도의 측정을 위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엔트로피 계열 지수인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을 산출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45°선으로 둘러싸인 초생달 모양의 부분의 면적을 45°선 이하의 삼각형 모양의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된다. 아래는 지니계수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G = \frac{1}{2\mu n^2} \sum_{i=1}^n \sum_{j=1}^n |y_i - y_j|$$

이 때,  $n$ 은 개인의 수,  $y_i$ 는 개인  $i$ 의 소득,  $\mu$ 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비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요인분해 하는 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Mookherjee와 Shorrocks는 Generalized Entropy 계열의 지수를 분해식에 사용



함으로써 지니계수를 집단별로 분해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도를 요인분해 하기 위해 Mookherjee와 Shorrocks(1982)의 분해식을 사용하였으며, Generalized Entropy 계열 지수로 대수편차평균을 구하여 요인분해에 사용하였다. 대수편차평균은 자연대수로 전환된 소득의 편차를 구하여 이를 평균한 값의 형태를 띄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GE(0) = \frac{1}{n} \sum_{i=1}^n \ln\left(\frac{\mu}{y_i}\right) = \ln\mu - \frac{1}{n} \sum_{i=1}^n \ln y_i = MLD$$

이 때,  $n$ 은 개인의 수,  $y_i$ 는 개인  $i$ 의 소득,  $\mu$ 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대수편차평균은 소득에 로그(log)를 취했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질수록 그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커지고 따라서 소득분포의 하위부분에서 이진이 일어날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다. 또한 이 지표는 쉽게 분해(decomposition)될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득불평등도를 요인분해 하는데 적합하다.

## (2) 소득불평등도의 분해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도를 각 변수특성별로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집단 내 불평등도와 집단 간 불평등도로 분해함으로써 각 변수특성별로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의 크기와 변화량을 산출할 수 있다. 요인분해는 정태적 요인분해와 동태적 요인분해로 나누어지는데, 정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의 소득불평등도를 분해할 수 있으며, 동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량을 집단 내 불평등 변화, 집단 인구구성 변화,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다음은 대수편차평균을 이용한 분해식이다.

$$GE(0) = \sum_{k=1}^k v_k GE(0)_k + \sum_{k=1}^k v_k \log\left(\frac{1}{\lambda_k}\right)$$

단,  $GE(0)_k$ 는  $k$  집단의 소득불평등도,

$v_k$ 는  $k$  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n_k/n$ )

$\lambda_k$ 는  $k$  집단 평균소득의 모집단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mu_k/\mu$ )

위의 식에서 첫 번째 항은 집단 내 불평등도를 나타내며, 이는 하위 집단 내 불평등도에 집단별 가중치를 준 것이다. 두 번째 항은 집단 간 불평등도를 나타내는데, 하위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통해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이 때 집단 내 불평등도는 집단을 구분한 요인과 관련 없는 소득분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집단 간 불평등도는 집단을 구분한 요인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rystal and Shea, 1990).

다음으로 동태적 분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 GE(0) &\equiv GE(0)_{t+1} - GE(0)_t \\
 &= \\
 &\sum_{k=1}^k \overline{v_k} \Delta GE(0)_k + \sum_{k=1}^k \overline{GE(0)_k} \Delta v_k - \sum_{k=1}^k [\overline{\log(\lambda_k)}] \Delta v_k - \sum_{k=1}^k \overline{v_k} \Delta \log(\lambda_k) \\
 &\approx \sum_{k=1}^k \overline{v_k} \Delta GE(0)_k \quad (A \text{항}) \\
 &\quad + \sum_{k=1}^k \overline{GE(0)_k} \Delta v_k \quad (B \text{항}) \\
 &\quad + \sum_{k=1}^k [\overline{(\lambda_k)} - \overline{\log(\lambda_k)}] \Delta v_k \quad (C \text{항}) \\
 &\quad + \sum_{k=1}^k [\overline{\theta_k} - \overline{v_k}] \Delta \log(\mu_k) \quad (D \text{항})
 \end{aligned}$$

위의 식에서  $\Delta$ 는 두 시점의 차이를 나타내며,  $\overline{v_k}$ 는 비교대상이 되는 변수의 두 시점 사이의 평균값,  $\theta_k$ 는 전체 소득에 대한 k 집단 소득의 비중을 나타낸다. 이 때 각 항이 의미하는 바는 A항은 집단 내의 순수한 불평등 변화효과(pure inequality effects), B항과 C항은 집단구성 변화의 효과(allocation effects)로 B항은 집단의 인구비중 변화에 따른 집단 내 인구변화 효과이며, C항은 집단 간 인구변화 효과이다. 마지막으로 D항은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효과(income effects)를 의미한다.

## 4. 연구결과

###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소득불평등도 측정 및 요인분해에는 1998년부터 2006년도까지 9개년도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으나 일반적 특성은 1998년과 2002년, 2006년 3개년도의 자료만을 제시하였다. 각 년도 별로 소득에 결측치가 없는 사례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여성의 경우 1998년에 6,310명, 2002년 5,419명, 2006년에 5,800명이었고, 남성은 1998년 5,868명, 2002년 5,025명, 2006년에 5,351명이었다.

우선 연령 집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 1998년 당시에는 18~29세인 집단이 27.5%로 가장 많았고, 30~39세인 집단이 23.5%, 40~49세인 집단이 20.3%, 60세 이상인 집단이 16.0%, 50~59세인 집단이 12.6%의 순이었으나 젊은 연령대 집단의 경우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중장년기 이후 연령대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져 2006년에는 60세 이상 집단이 22.6%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40세 미만 젊은 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여성과는 달리 2006년에도 30~39세인 집단이 24.5%, 40~49세인 집단이 21.0%로 가장 인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가 여성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구분	여성(%)			남성(%)		
	1998년 (N=6,310)	2002년 (N=5,419)	2006년 (N=5,800)	1998년 (N=5,868)	2002년 (N=5,025)	2006년 (N=5,351)
<b>연령</b>						
18-29세	27.5	24.3	20.5	26.1	23.5	19.5
30-39세	23.5	20.6	21.1	25.0	23.4	24.5
40-49세	20.3	20.1	20.1	21.6	21.9	21.0
50-59세	12.6	13.8	15.7	14.7	14.5	17.0
60세 이상	16.0	21.2	22.6	12.6	16.6	17.9
<b>학력</b>						
초졸 이하	27.4	28.0	24.5	13.6	12.3	10.2
중졸 이하	13.9	13.4	12.9	12.4	12.9	11.1
고졸 이하	36.8	34.1	32.2	40.2	38.4	35.9
대졸 이상	21.9	24.6	30.4	33.8	36.4	42.8
<b>종사상지위</b>						
상용직	44.7	49.1	49.2	53.7	53.8	55.1
임시일용직	14.7	17.4	17.3	10.4	13.2	13.4
자영 및 무급가족종사자	40.6	33.5	33.5	35.8	33.0	31.5
<b>산업</b>						
농어업, 광업, 건설 등	16.9	10.0	9.2	23.5	21.8	19.7
제조업	17.3	18.9	17.1	22.5	23.5	23.1
서비스업	65.8	71.1	73.8	54.1	54.7	57.2
<b>직업</b>						
관리자 및 전문가	17.4	19.4	23.9	19.9	21.6	25.7
사무직	15.6	15.0	17.9	10.9	9.3	11.1
서비스 및 판매직	34.7	33.9	30.5	15.9	17.4	13.6
기타 비숙련직	32.3	31.7	27.7	53.4	51.7	49.7
<b>혼인상태</b>						
미혼	21.6	20.3	18.6	27.7	27.5	25.8
기혼유배우	64.1	63.5	63.6	68.8	68.3	68.1
별거 및 이혼	2.3	2.1	3.3	2.1	2.5	4.0
사별	12.0	14.1	14.5	1.4	1.8	2.1
<b>동종혼인</b>						
여성고졸이하 남성고졸이하	70.6	68.3	60.3	70.6	68.3	60.3
여성고졸이하 남성대졸이상	14.7	14.4	14.8	14.7	14.4	14.8
여성대졸이상 남성고졸이하	1.5	2.3	3.4	1.5	2.3	3.4
여성대졸이상 남성대졸이상	13.2	15.0	21.5	13.2	15.0	21.5
연소득(만원)	995.7	1461.6	1930.4	1023.8	1478.4	2253.5

주: 연소득은 전년도에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의 합을 평균한 값임.

학력별로는 여성의 경우 1998년에 고졸 이하가 36.8%로 가장 많았고, 초졸 이하가 27.4%, 대졸 이

상이 21.9%, 중졸 이하가 13.9% 순이었으나 2006년에는 대졸 이상 집단이 30.4%로 증가한데 반해 나머지 집단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비슷한 고학력화 추이를 보여 1998년에는 고졸 이하인 집단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06년에는 대졸 이상이 42.8%로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집단 비중은 남녀 모두 상용직, 자영 및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직의 순이었는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다소 증가하고 자영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상용직은 1998년 44.7%였으나 2006년 49.2%로 증가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의 비중도 14.7%에서 17.3%로 증가하였다. 남성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상용직은 53.7%에서 55.1%로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의 비중도 10.4%에서 13.4%로 증가하였다. 산업별 집단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그다지 큰 변화추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비스업이 증가한 반면 농어업, 광업, 건설 등 기타 업종의 경우 감소추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집단에서 서비스 업종의 증가추이가 두드러졌는데 남성의 경우 1998년 54.1%에서 2006년 57.2%로 3.1% 증가한데 반해 여성의 경우 65.8%에서 73.8%로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집단 비중은 여성의 경우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비숙련 직종, 사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의 순이었으나 남성의 경우 기타 비숙련 직종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관리자 및 전문가, 서비스 및 판매직, 사무직의 순이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관리자 및 전문가와 사무직의 집단 비중이 증가한데 반해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비숙련 직종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른 집단 비중은 남녀 모두 기혼유배우자와 미혼 집단의 비중이 컸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사별한 집단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사별한 집단의 비중은 1998년 12.0%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14.5%였고, 별거 및 이혼한 집단 비중도 1998년 2.3%에서 2006년 3.3%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사별한 집단의 비중은 1998년에 1.4%에서 2006년에 2.1%로 다소 증가하였고 별거 및 이혼한 집단 비중도 1998년 2.1%에서 2006년 4.0%로 다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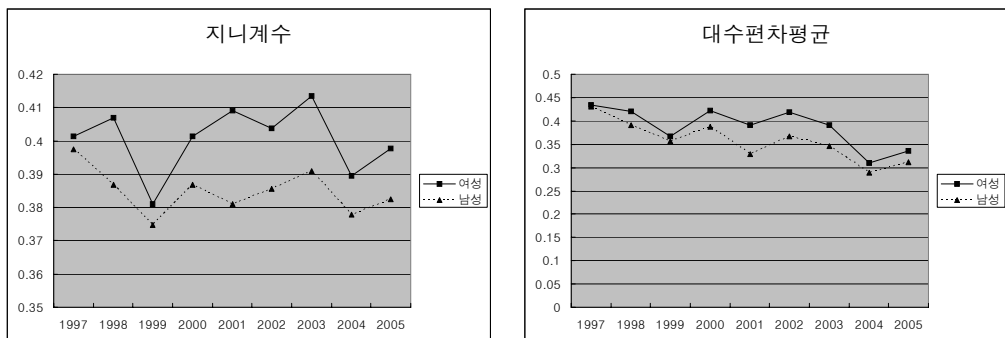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동종혼인에 따른 집단비중은 여성과 남성 모두 혼인상태가 유배우자인 경우만을 분석에 포함한 후 여성과 남성 개인을 1:1로 매칭(matching)시켰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집단 비중이 같게 나타난다. 동종혼인에 따른 집단은 1998년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고졸인 경우가 70.6%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고졸 이하·남성이 대졸 이상이 경우가 14.7%, 여성과 남성 모두 대졸 이상인 경우가 13.2% 순이었으며 여성이 대졸이상이고 남성이 고졸이하인 경우는 1.5%에 불과해 남성의 학력이 여성보다 낮은 혼인관계가 사회적으로 매우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대졸 이상인 집단이 21.5%로 증가하였으나 여성과 남성 모두 고졸 이하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동종혼인의 증가보다는 전체적인 학력수준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고졸 이하이고 남성이 대졸 이상인 집단과 여성이 대졸 이상이고 남성이 고졸 이하인 집단의 비중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은 여성의 경우 1997년 995.7만원에서 2001년에는 1461.6만원, 2005년에는 1930.4만원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1997년 1023.8만원, 2001년에 1478.4만원, 2005년에 2253.5만원으로 1997년에 비해 2001년에 남녀의 연소득 격차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 2) 성별 집단별 소득불평등의 추이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는 <표 2>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1999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3년까지 상승추이를 보였으며 2004년에 다시 감소하였고 2005년에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수편차평균도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나 소득불평등도의 감소폭이 보다 크게 표현되고 있다. 1999년에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한 것은 원종학·성명재(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2004년에 소득불평등도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최근에 소득불평등도가 감소추이를 보이는지 2004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는지는 최근 자료를 이용한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표 2> 성별 집단별 소득불평등도 추이

불평등지수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니계수	여성	0.4013	0.4069	0.3810	0.4014	0.4092	0.4037	0.4134	0.3894	0.3976
	남성	0.3976	0.3869	0.3747	0.3869	0.3811	0.3856	0.3910	0.3778	0.3824
대수편차평균	여성	0.4347	0.4200	0.3661	0.4215	0.3908	0.4187	0.3918	0.3094	0.3351
	남성	0.4315	0.3910	0.3569	0.3867	0.3295	0.3667	0.3459	0.2892	0.3117



<그림 1> 성별 집단별 소득불평등도 추이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면 전반적인 변화 추이의 형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집단 내 소득불평등이 남성 집단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니계수의 경우 남성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에서 소득불평등도의 변동 폭이 더 컸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경기 변동으로 인한 고용상태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3)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설문에서 전년도 소득을 조사하므로 <표 1>에 제시된 연소득은 1997년, 2001년, 2005년의 연소득이다.

추측된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여성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1999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0.4134로 외환위기 직후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남성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변화폭이 여성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에 비해서는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니계수와 대수편차평균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는 소득불평등 수준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특히 여성 집단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여성 집단에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3) 성별집단 내 소득불평등의 원인

위에서는 1997년에서 2005년까지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추이를 성별로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파악하기 위해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특성별로 요인분해 하기로 한다. 요인분해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파악된 변수별로 하위집단을 구분하고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집단 내 불평등도와 집단 간 불평등도로 분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집단 간 불평등도는 집단을 구분한 요인, 즉 해당 변수가 전체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과 <그림 2>는 여성과 남성 집단별로 변수특성별 기여도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성별로 각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의 차이와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불평등도의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을 구분한 요인 외에 나머지 요인들의 영향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변수별로는 남녀 모두 학력의 기여도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여성과 남성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집단 간 불평등도의 상대적 기여도는 여성 집단의 경우 동종혼인이 4.91%, 혼인상태가 4.51%, 연령이 3.90%, 직업이 2.81%, 종사상 지위가 1.62%, 산업이 0.91%의 순으로 동종혼인이나 혼인상태와 같은 가구특성과 연령이 여성 내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직업이 5.23%로 학력변수 다음이었으며, 동종혼인이 4.96%, 종사상 지위 3.99%, 산업 2.49%의 순이었으며 연령과 혼인상태는 1.26%과 1.07%로 비중이 매우 낮아 동종혼인 변수를 제외하고는 여성과는 달리 노동시장과 관련된 특성이 남성 내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전체 불평등도를 요인분해 한 결과 집단 간 불평등도의 비중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거시적, 미시적 원인들이 매우 다양한데 반해 소득불평등도를 요인분해 하는 방식이 각 변수들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 불평등도를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학력집단 간 불평등도를 요인분해 했을 때 집단 내 불평등도에는 학력이 아닌 다른 변수들, 연령이나 산업, 직업, 혼인상태 등의 영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 간 불평등도는 비록 적은 수치이지만 변수별 기여도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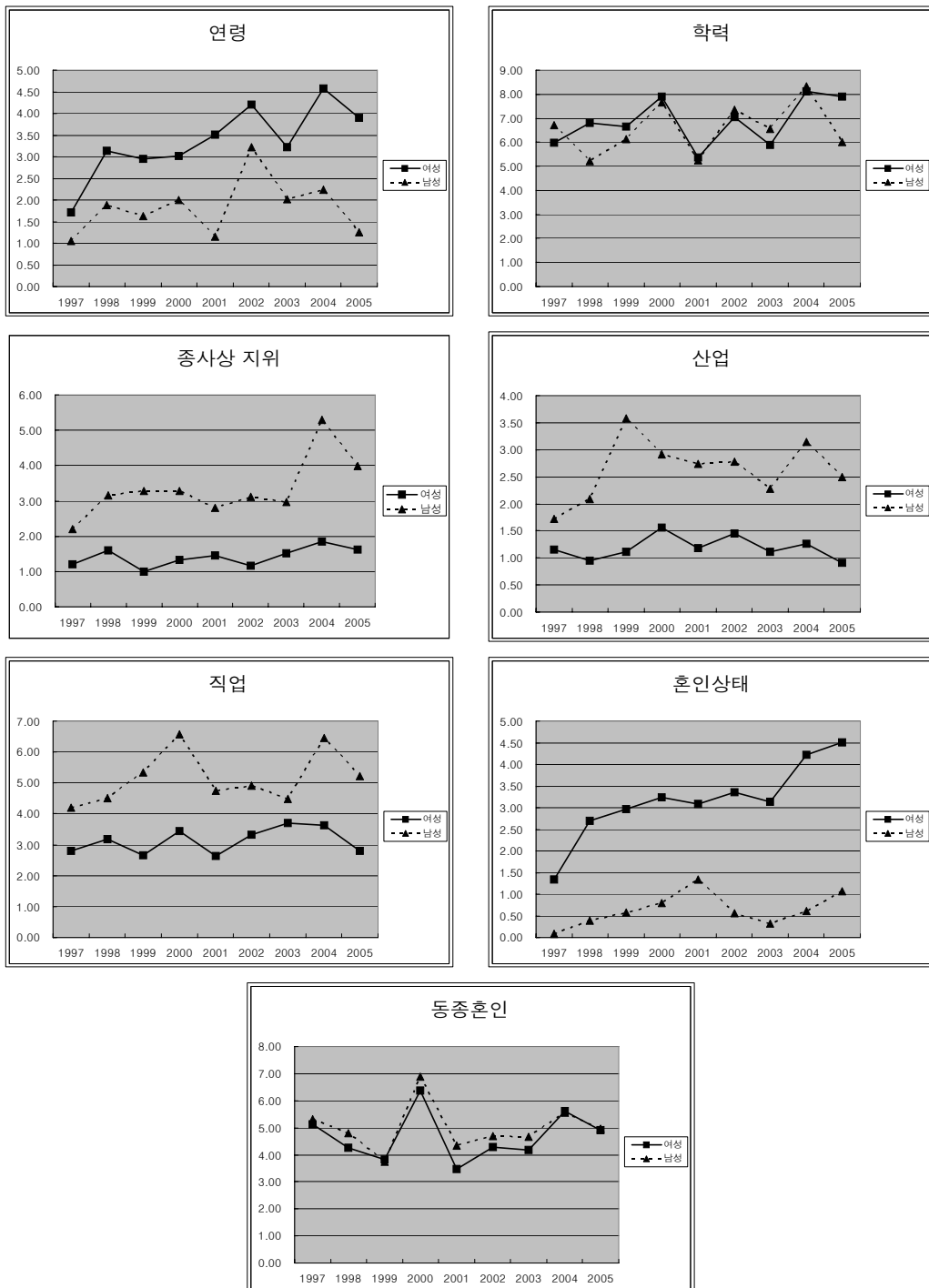
<표 3> 변수 특성별 집단 간 불평등도의 기여도 변화

년도	여성							남성						
	연령	학력	중사상 지위	산업	직업	혼인 상태	동중 혼인	연령	학력	중사상 지위	산업	직업	혼인 상태	동중 혼인
1997	1.71	5.96	1.20	1.15	2.80	1.34	5.13	1.05	6.70	2.19	1.72	4.19	0.08	5.32
1998	3.14	6.82	1.60	0.94	3.18	2.70	4.26	1.88	5.22	3.16	2.09	4.51	0.39	4.81
1999	2.95	6.64	0.99	1.12	2.66	2.97	3.82	1.63	6.12	3.28	3.58	5.34	0.58	3.75
2000	3.02	7.90	1.33	1.55	3.44	3.24	6.38	2.00	7.65	3.28	2.92	6.57	0.80	6.89
2001	3.50	5.38	1.45	1.18	2.64	3.08	3.48	1.15	5.25	2.79	2.74	4.76	1.33	4.33
2002	4.20	7.06	1.15	1.45	3.32	3.36	4.28	3.22	7.35	3.12	2.77	4.91	0.55	4.68
2003	3.22	5.88	1.51	1.11	3.70	3.14	4.19	2.01	6.55	2.98	2.27	4.49	0.32	4.65
2004	4.57	8.12	1.85	1.26	3.62	4.22	5.61	2.23	8.34	5.30	3.15	6.46	0.60	5.56
2005	3.90	7.89	1.62	0.91	2.81	4.51	4.91	1.26	6.00	3.99	2.49	5.23	1.07	4.96

주: 집단 간 불평등도의 기여도는 전체 불평등도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중임.

다음으로 1997년에서 2005년까지 집단 간 불평등도의 기여도 변화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연령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도의 기여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컸으며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기여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기여도가 2002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추이를 보여 2005년에도 1997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도의 기여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력의 기여도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집단 간 불평등도의 기여도는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거나 변화 추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997년 학력의 기여도 비중이 5.96%로 남성의 6.7%보다 낮았으나 2006년에는 7.89%까지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2004년에 8.34%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 다시 6.00%로 감소해 여성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남성의 학력에 따른 기여도가 증감을 반복하는데 반해 여성의 기여도 추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학력이 여성 집단 내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특성을 나타내는 중사상 지위, 산업, 직업에 따른 기여도는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기여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사상 지위에 따른 기여도는 여성의 경우 1997년 1.2%에서 2005년 1.62%로 증가폭이 크지 않은데 반해 남성의 경우 1997년 2.19%에서 2004년 5.3%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5년 3.99%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에 따른 기여도는 여성의 경우 1997년 1.15%에서 완만하게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05년에는 0.91%로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1997년 1.72%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3.5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2.49%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업에 따른 추이도 산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2005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남성의 경우 2000년과 2004년에 6.57%, 6.46%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 5.23%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변수특성별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도 변화



노동시장 특성과는 달리 가구특성 중에서 혼인상태의 기여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기여도가 2005년까지 크게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증가폭이 크지 않아 연령과 마찬가지로 가구특성의 기여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종혼인은 전 기간에 걸쳐 기여도의 비중이 높았으나 일정한 변화추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성별집단 내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

여기서는 1997에서 2005년까지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원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표 4>와 <표 5>는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1997년에서 2001년까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두 기간으로 구분한 것이며, 두 기간 사이의 소득불평등도 변화량은 순수한 불평등 변화효과(A항: pure inequality effects), 집단구성 변화의 효과(B항 및 C항: allocation effects),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효과(income effects: D항)로 분해된다.

우선 <표 4>는 여성의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요인분해 한 결과이다. 모든 변수에서 순효과(A항)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집단 내 불평등도 변화가 전체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이끈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원인을 변수별로 살펴보면 우선 연령의 경우 순효과가 전체 변화를 압도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다른 효과들을 살펴보면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집단구성의 변화(B항)와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D항)가 소득불평등을 감소에 부(-)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집단 구성비 변화의 상대적 기여도는 -42.0%로 높은 편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가 여성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력의 경우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기여도가 14.2%로 비교적 큰 편으로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1년에서 2005년에는 추이가 바뀌어 상대소득 변화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구성 변화의 기여도가 12.0%로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와 산업, 직업 모두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집단구성 변화(B항)의 기여도가 각각 35.8%, 35.9%, 31.0%로 매우 큰 편이었으며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기간 동안 노동시장 특성의 변화는 오히려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집단구성 변화의 기여도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 집단 간 상대소득의 변화(D항)의 기여도가 큰 편이었는데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8.6%였으나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3.3%로 감소하였다.

〈표 4〉 여성 소득불평등도 변화에 대한 동태적 요인분해

변수	년도	구분	전체변화	순효과			집단구성 변화		집단간 상대소득 변화
				A	B	C	D		
연령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0439	-0.069	0.0184	0.0022	0.0041		
		상대적 기여도(%)	100.0	156.3	-42.0	-4.9	-9.4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556	-0.0589	0.0039	0.0006	-0.0011		
		상대적 기여도(%)	100.0	105.9	-6.9	-1.0	2.1		
학력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0439	-0.0401	0.0011	0.0014	-0.0063		
		상대적 기여도(%)	100.0	91.3	-2.4	-3.1	14.2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557	-0.0543	-0.0067	0.0005	0.0048		
		상대적 기여도(%)	100.0	97.5	12.1	-1.0	-8.7		
종사상 지위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0440	-0.0288	-0.0157	0.0012	-0.0007		
		상대적 기여도(%)	100.0	65.3	35.8	-2.7	1.6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556	-0.0562	0.0008	0.0000	-0.0002		
		상대적 기여도(%)	100.0	100.9	-1.4	0.1	0.3		
산업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0439	-0.0278	-0.0158	0.0000	-0.0003		
		상대적 기여도(%)	100.0	63.2	35.9	0.1	0.8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556	-0.0548	0.0008	0.0000	-0.0015		
		상대적 기여도(%)	100.0	98.6	-1.4	0.0	2.8		
직업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0438	-0.0285	-0.0136	0.0021	-0.0038		
		상대적 기여도(%)	100.0	65.1	31.0	-4.8	8.6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557	-0.0551	0.0004	0.0009	-0.0018		
		상대적 기여도(%)	100.0	98.9	-0.7	-1.6	3.3		
혼인 상태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0432	-0.0553	0.0059	0.0006	0.0056		
		상대적 기여도(%)	100.0	128.0	-13.6	-1.5	-12.9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556	-0.0620	0.0033	0.0014	0.0017		
		상대적 기여도(%)	100.0	111.6	-6.0	-2.5	-3.1		
동종 혼인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0469	-0.0381	0.0000	0.0013	-0.0101		
		상대적 기여도(%)	100.0	81.2	0.0	-2.7	21.4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564	-0.0585	-0.0008	0.0032	-0.0003		
		상대적 기여도(%)	100.0	103.7	1.4	-5.7	0.6		

혼인상태 또한 순수한 집단 내 불평등도 변화가 전체 변화를 압도할 정도로 컸는데, 1997년과 2001년 사이에는 집단구성의 변화와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기여도가 -13.6%, -12.9%로 큰 편이었으며 전체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다소 감소하여 기간 동안 집단구성 변화(B항)의 기여도는 -6.0%,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기여도는 -3.1%였다. 마지막으로 동종혼인의 경우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기여도가 21.4%로 가장 컸으며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과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집단구성 변화(C항)의 효과가 더 컸다.

다음으로 〈표 5〉는 남성의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과이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에서 순효과(A항)의 비중이 가장 컸다. 우선 연령의 경우 집단구성의 변화(B항)의 기여도가 1997

년에서 2001년 사이에 -11.8%,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15.2%로 큰 편이었으며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부(-)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D항)는 기여도는 적은 편이었으나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어 여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학력은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기여도가 11.2%로 큰 편이었으며 전체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미쳤으나 여성과 마찬가지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9.6%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최근 학력집단 간 소득격차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집단구성 변화의 효과 또한 23.9%로 매우 큰 편이었으며 남성 집단의 고학력화가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와 산업, 직업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집단구성 변화의 기여도가 가장 큰 편이었다. 종사상 지위에서 집단구성 변화의 기여도는 1997년에서 2001년까지 22.1%였으나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15.4%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기여도가 증가하여 -18.1%였으며 전체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부(-)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 1997년에서 2001년까지 집단구성 변화의 기여도가 20.9%였으나 마찬가지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11.5%로 감소하였다. 기간 동안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기여도는 7.2%로 전체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도 마찬가지로 집단구성 변화(B항)의 기여도가 1997년에서 2001년까지 19.8%였으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15.6%로 전체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혼인상태는 2001년과 2005년 사이 집단구성 변화의 기여도가 -14.6%로 전체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는 13.7%로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동종혼인은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가 9.6%로 전체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정(+)의 효과를 미쳤으며 이 효과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10.2%로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 집단구성 변화(C항)는 -18.3%로 전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서 2000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원인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우선 연령 집단구성의 변화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상대적 기여도가 남성보다 컸다. 집단 간 상대소득의 변화는 남성의 경우 전 기간 동안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원인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고령 집단의 증가와 연령 집단 간 상대소득의 격차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집단구성의 변화의 기여도가 큰 편이었는데 특히 종사상 지위에서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남성 집단에서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집단 구성의 변화가 남녀 모두에 있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었으나 집단 간 상대소득의 변화는 여성의 경우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한 반면 남성의 경우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동종혼인에서 집단 간 상대소득의 변화는 남녀 모두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원인이었다.

〈표 5〉 남성 소득불평등도 변화에 대한 동태적 요인분해

변수	년도	구분	전체변화	집단구성 변화			집단간
				순효과	A	B	C
연령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1019	-0.113	0.0120	0.0009	-0.0016
		상대적 기여도(%)	100.0	111.1	-11.8	-0.9	1.6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178	-0.0206	0.0027	0.0003	-0.0002
		상대적 기여도(%)	100.0	115.9	-15.2	-1.8	1.0
학력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1019	-0.0887	-0.0017	-0.0002	-0.0114
		상대적 기여도(%)	100.0	87.0	1.6	0.2	11.2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179	-0.0150	-0.0043	-0.0004	0.0017
		상대적 기여도(%)	100.0	83.4	23.9	2.3	-9.6
종사상 지위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1020	-0.0793	-0.0225	0.0001	-0.0003
		상대적 기여도(%)	100.0	77.7	22.1	-0.1	0.3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178	-0.0183	-0.0027	0.0000	0.0032
		상대적 기여도(%)	100.0	102.6	15.4	0.1	-18.1
산업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1020	-0.0823	-0.0213	-0.0003	0.0020
		상대적 기여도(%)	100.0	80.7	20.9	0.3	-1.9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178	-0.0145	-0.0021	0.0000	-0.0013
		상대적 기여도(%)	100.0	81.3	11.5	0.0	7.2
직업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1019	-0.0794	-0.0202	0.0010	-0.0033
		상대적 기여도(%)	100.0	78.0	19.8	-1.0	3.2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179	-0.0157	-0.0028	0.0014	-0.0009
		상대적 기여도(%)	100.0	87.6	15.6	-8.0	4.8
혼인 상태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1016	-0.1071	0.0014	0.0003	0.0038
		상대적 기여도(%)	100.0	105.4	-1.4	-0.3	-3.7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177	-0.0194	0.0026	0.0015	-0.0024
		상대적 기여도(%)	100.0	109.2	-14.6	-8.3	13.7
동종 혼인	1997-2001	절대적 기여도	-0.1026	-0.0936	-0.0003	0.0012	-0.0098
		상대적 기여도(%)	100.0	91.2	0.3	-1.2	9.6
	2001-2005	절대적 기여도	-0.0163	-0.0165	-0.0011	0.0030	-0.0017
		상대적 기여도(%)	100.0	101.2	6.9	-18.3	10.2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 추이와 원인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로 측정된 여성과 남성의 소득불평등도는 1999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3년까지 다시 상승추이를 보였으며 2004년에 감소 후 2005년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았으며 변동 폭도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소득불평등 수준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특히 여성 집단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것

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집단 내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소득불평등도를 인적자본 특성, 노동시장 특성, 가구특성 별로 집단 내 불평등도와 집단 간 불평등도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 간 불평등도의 상대적 기여도는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학력, 동종혼인, 혼인상태, 연령, 직업, 종사상 지위, 산업의 순이었으며, 남성은 학력, 직업, 동종혼인, 종사상 지위, 산업, 연령, 혼인상태의 순이었다. 남녀 모두 학력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동종혼인, 혼인상태, 연령 등 가구특성 및 인적자본 특성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동종혼인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특성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에서 2006년까지 변수별 집단 간 불평등도의 상대적 기여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른 기여도의 성별 차이가 최근 들어 매우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와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에서의 성별 차이 또한 최근 들어 다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과 혼인상태보다는 적은 수준이었다. 학력에 따른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최근에 오히려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분석기간 동안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원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997년에서 2000년,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분해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 변화가 전체 소득불평등도 변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구성의 변화,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순이었다. 연령과 학력, 혼인상태, 동종혼인에서 집단 간 상대소득 변화의 상대적 기여도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본 연구결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원인은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집단의 높은 소득불평등도가 전체적인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히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특성보다는 연령 및 학력 등의 개인적 특성과 혼인상태, 동종혼인 등의 가구 특성의 영향력이 보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노인 및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 저학력 여성 집단의 취업 등에 대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경력이 없거나 단절적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여성 노인을 빈곤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어 기여경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소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금액 수준이 너무 낮아 생계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금액의 상향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지위에 기초하여 설계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게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저임금 직종에 머무르거나 분절적이고 단기간의 노동경력을 가지는 여성의 특성에 맞게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연금 기여를 감면해 주거나 크레딧(credit)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이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질 높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내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저

임금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실질적인 육아지원제도의 마련과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을 강화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은 여성의 생계유지 및 경력 축적을 통한 일자리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설계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특성이 소득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데 최근 들어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의 기여도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 특히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학력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집단 간 상대소득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내에서 종사상 지위 및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학력 저임금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 및 현장과 연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는 청년 실직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액의 지속적 인상 등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병구·윤명수. 2003. “근로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경제발전연구』 9(1): 155-175.
- 김영옥. 2006. 『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진욱. 2002.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분석 -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19: 267-293.
- 박성준. 2000.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론집』 23(2): 61-80.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명재. 2001.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 중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김종면. 2004. 『부문별,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공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안국신. 1995.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발전연구』 1: 53-76.
- 안국신·박완규·유항근. 1995.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분석” 『계량경제학보』 6: 57-86.
- 여유진·김태완.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빈곤과 불평등 실태 및 정책 대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2-75.
- 여지영. 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원종학·성명재. 2007.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유경준. 1998.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변화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유경준·김대일. 2002.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 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정의철·김진욱. 2007.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3): 57-77.
- 정이환. 2004. “서비스산업화와 노동의 변화” 『한국사회학』 38(4): 159-186.

- 정진호·최강식. 2001. “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경제학연구』 49(3): 39-64.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주학중. 1979.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한국개발연구원.
- 주학중·윤주현. 1984. “1982년 계층별 소득분배의 추계와 변동요인” 『한국개발연구』 6(1): 2-18.
- 채구묵. 2007.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1): 199-221.
- 황수경·김가을. 2005.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 -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2005년 9월호: 38-48.
- 통계청. 2008. <http://www.kosis.kr>.
- 통계청.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www.kosis.kr>.
- 통계청.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www.kosis.kr>.
- 통계청. 2001.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http://www.kosis.kr>.
- 통계청. 2007.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http://www.kosis.kr>.
- 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http://www.kosis.kr>.
- Bernhardt, Annette, Martina Morris, and Mark S. Handcock. 1995. “Women’s Gains or Men’s losses? A Closer Look at the Shrinkng Gender Gap in Earning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01(2): 302-328.
- Blackburn, McKinley L., and David E. Bloom. 1987. “Earnings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4): 575-609.
- Blinder, Alan. S., and Howard. Y. Esaki. 1978. “Macroeconomic A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 604-609.
- Burtless, Gary. 1999.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 853-865.
- Cancian, Maria, Sheldon Danzinger, and Peter Gottschalk. 1993. “Working Wives and Income Inequality Among Married Couples”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by Sheldon Danzinger and Peter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 Cancian, Maria, and Deborah Reed. 1999. “The Impact of Wive’s Earnings on Income Inequality: Issues and Estimates.” *Demography* 36(2): 173-184.
- Crystal, Stephen, and Dennis Shea. 1990. “Cumulative advantage, cumulative disadvantage, and inequality among elderly people.” *The Gerontologist* 30(4): 437-443.
- Danzinger, Sheldon. 1980. “Do Working Wives Increase Family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Human Resources* 15: 444-451.
- Daly, Mary C. 2004. “Inequality and Poverty in United States: The effects of Rising Dispersion of Men’s Earnings and Changing Family Behavior”, *Economica* 73: 75-98.
- DiNardo, John, Nicole M. Fortin, and Thomas Lemieux. (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1001-1044.
- Gottschalk, Peter. 1997. “Inequality, Income Growth, and Mobility: The Basic Fac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2): 21-40.
- Henle, Peter, and Paul Ryscavage. 1980. “The distribution of earned income among men and women, 1958-77.” *Monthly Labor Review* 103(4): 3-10.

- Hyslop, Dean R. 2001. "Rising U.S. Earnings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The Covariance Structure of Intrafamily Earning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4): 755-777.
- Juhn, Chinhui, and Kevin M. Murphy. 1997. "Wage Inequality and Family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72-97.
- Karoly, Lynn A., and Gary Burtless. 1995. "Demographic Change, Rising Earning Ine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Well-being, 1959-1989." *Demography* 32(3): 379-405.
- Katz, Lawrence F., and Kevin M. Murphy. 1992.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1): 35-78.
- Kuznets, Simon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28.
- Lerman, Robert I. 1996. "The Impact of the Changing US Family Structure on Child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Economica* 63(250: supplement): S119-S139.
- McCall, Leslie. 2001. *Complex Inequality: Gender, Class and Race in the New Economy*. New York · London: Routledge.
- Mookherjee, Dilip and Anthony Shorrocks. 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the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92(368): 888-902.
- Murphy, Kevin M. and Finis Welch. 1991.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de in wage differentials" in *Workers and their wages* edited by Marvin H. Koster, Washington D.C.: AEI Press.
- Smith, Shelley A. 1991. "Sources of Earnings Inequality in the Black and White Female Labor Forc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1): 117-138.
- Thurow, L. C. 1987. "A Surge in Inequality." *Scientific American* 256(5): 26-33.



## The Trends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Among Gender

**Kim, Hye-Yeon**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Hong, Baeg-Eui**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income inequality by gender since 1997 economic crisis and to investigate what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se changes for males and females.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nine waves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Income inequality is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mean logarithmic deviation(MLD) and the MLDs are decomposed into three components to quantify within- and between-group inequalit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xtent of income inequality is greater for women during the whole period and is fluctuated more widely. Women's income inequality is mainly affected by the family-related variables, such as age and marital status, while men's inequality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labor market factors, such as employment status, industrial types and occupation status. These results imply that gender-sensitive welfare policies need to be implemented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ssist the poor women and men through the benefits from the income assistance programs and labor market programs.

Key words: income inequality, inequality among gender, factor decomposition

[논문 접수일 : 2009년 2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4월 23일]